

PAWEES 2005 International Conference에 대한 소회

강원대학교 지역기반공학전공 교수 최 중 대

PAWEES 2005 International Conference가 "Management of Paddy and Water Environment for Sustainable Rice Production"을 주제로 하여 2005년 9월 7일과 8일 일본 교토의 Kyoto University Clock Tower Centennial Hall에서 개최되었다. PAWEES 2005 Conference는 일본 PAWEES가 주관하고 한국농공학회와 대만농공학회를 비롯하여 JSPS(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JSIDRE(Japanese Society of Irrigation, Drainage and Reclamation Engineering), AAAE(Asian Association for Agricultural Engineering), CIGR(Commision Internationale du Genie Rural), IWMI(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IRRI(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CID(International Commission on Irrigation and Drainag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Japan, INWEPF(International Network for Water and Ecosystem in Paddy Fields), ARIC(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Information Center), NIRE(National Institute for Rural Engineering), 그리고 JIRCAS(Japan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Agricultural Sciences) 등 많은 기관이 공동으로 후원하였다. PAWEES 2005 Conference는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대만이 참가하는 조출한 Conference로 알았으나 일본에 도착하고 보니 아시아, 북미, 유럽, 아프리카 등의 28개국에서 130명의 전문가, 행정가 및 유엔 산하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국제회의이었다. 일본 농공학회와 PAWEES의 전임회장인 Sato Yohei 교수가 Conference 조직위원장으로 JSPS 등의 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아 개최하였다고 한다. JSPS는 일본의 전문가들이 국제회의를 유치할 때 개최경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라는 설명을 듣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많은 차

이가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PAWEES 2005 Conference에 우리나라에서는 권순국 PAWEES 회장, 김태철 우리학회 회장과 본인 등 3명이 참가하였다. 반면에 대만에서는 8명의 교수 및 행정가가 참여하여 우리와 많은 대조를 이루었다.

9월 7일 제1일차 Conference는 오전의 개회식을 포함한 Plenary 세션과 오후의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Plenary 세션에서는 Dr. SATO Yohei Conference 조직위원회 위원장(전임 PAWEES 회장)의 개회사, 권순국 PAWEES 회장의 환영사 등과 2명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오후의 세션 1은 김태철 우리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 estimation of magnitude, policy implication"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세션 2는 일본의 Takao Masumoto 교수가 좌장을 맡아 "river basin management, comprehensive assessment, participatory management"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제3세션에서는 대만의 Dr. Cheng과 필자가 좌장을 맡아 "ecosystem management, self-sufficiency, poverty alleviation"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오염총량 관리제와 논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와 경향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조직위원회의 설명에 의하면 발표를 신청한 논문의 50% 이하만이 선택적으로 발표가 가능할 정도로 논문발표신청이 많았었다고 한다.

제2일차 Conference는 ICID의 케이주를 빈 압둘라 회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세션 1, 2, 3 좌장이 각 세션의 논문발표와 토론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하였다. 우리학회의 김태철 회장은 제1세션의 세션요약을 발표하였다. 9월 6일 오후에 열린 좌장과 Conference 조직위원 회의, 기조연설, 각 세션의 발표와 토론내용을 종합하여 Kyoto

Statement를 준비하기 위한 토론시간에 이어 Kyoto Statement가 발표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본 농공학회 회장의 인사로 Conference는 막을 내렸다.

PAWEES 2005 Conference의 목적은 논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을 강조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개최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본 Conference를 대표할 수 있는 Kyoto Statement에는 논의 다원적 기능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Kyoto Statement는 네델란드 태생의 IRRI 전문가인 Dr. Bas Bouman이 주관하여 작성하였다. Dr. Bouman은 논의 다원적 기능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Kyoto Statement에서는 논의 다원적 기능이 크게 강조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웠다. 또한 개최식 기조연설과 각 세션별 기조연설에서도 논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내용보다는 Water Scarcity(물부족), Food Security(식량확보), Poverty Alleviation(기아극복) 등과 쌀 생산과의 관계를 주로 설명하여 필자가 생각하는 Conference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 및 북유럽의 일부국가는 논의 다원적 기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인지도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논의 다원적 기능은 이번의 PAWEES 2005 Conference를 시작으로 11월 2~4일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INWEPF 회의, 그리고 대만에서 열리는 PAWEES와 APEC 회의에서도 주제로 사용된다. 또한 논의 다원적 기능은 2006년 3월에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제4차 World Water Forum에서도 INWEPF 세션에서 주제로 사용하며 다시 한번 논의 다원적 기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다.

국제회의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다. 특히, 한국, 일본, 대만 등의 논의와 관련된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두 번의 회의 참석으로도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지속적으

로 교류할 수 있다. 외모와 풍습이 비슷한 동질성이 있어서 그런지 미국이나 유럽의 전문가들과 사귀는 것 보다는 훨씬 친근감이 많고 알게 모르게 통하는 점도 많아 짧은 시간 내에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공분야의 수문과 수질 및 환경을 다루는 교수, 연구원 및 공무원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농공분야의 다양한 연구욕구와 정책자료를 개발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연구인력과 연구자료의 부족은 우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PAWEES에서 주관하는 회의에는 어렵더라도 가능하면 많은 교수, 연구원 및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교류를 증진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필자는 지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제15회 Stockholm Water Week에 참석하였다. 이번의 회의는 세계의 117개국에서 1,6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이었다. 그러나 필자를 놀라게 한 점은 회의의 규모가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는 물론 선진국의 많은 나라에서 정말로 많은 공무원이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교환하는 모습이였다.

우리나라의 농공분야는 소수회원의 의지만 가지고는 발전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국가기관, 연구기관, 사업기관 및 후원기관 등이 의기투합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와 활동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의 농공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PAWEES와 INWEPF 국제회의가 이와 같은 협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국내의 국가기관, 연구기관, 사업기관의 전문가가 국내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부상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